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광주시는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은 많지만 이용객은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문화시설 수 ‘양호’ 관람객·소장자료는 전국 최저

### 문체부 ‘2015 문화기반시설 총람’ 분석

광주시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 숫자가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술관과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관람객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전남은 제주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술관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지만 소장품과 관람객은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간한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5년 1월1일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등 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2519개관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수치로, 전체 시설의 36.2%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광주는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수가 36.59개소로 조사돼 서울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 가운데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통계다. 이어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35.25개소),

울산(34.29), 서울(33.8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이 22.45개소로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적은 도시로 조사됐다. 실제 문화시설 통계로는 서울이 342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88개소), 부산(79), 대구(66), 광주·대전(54), 울산(40) 순이다.

광주에는 공공도서관 20개소, 박물관 10개소, 미술관 7개소, 문예회관 8개소, 지방 문화원 5개소, 문화의 집 4개소 등이 있다.

특히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 미술관이 가장 많고, 1개관 당 직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연관람인원은 1개관당 평균 4만4236명(전국평균 6만3676명) 수준으로 가장 이용객이 없는 문화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지역의 3분의 1 수준이다. 광역시의 미술관 1개관 당 연관람인원은 대구(18만8635명), 부산(12만6743명), 인천(11만4849명), 대전(9만7372명) 순이다.

문예회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 지역 문예회관 8곳의 평균 공연일수는 159일로, 울산(138일)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또 1개관당 평균 이용자 수도 부산(19만110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만1034명으로 6대

광역시 최저였다.

전남 지역에는 공공도서관 63개소, 박물관 46개소, 미술관 22개소, 문예회관 19개소 등 모두 63개소의 문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00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128.20개소로 제주(205.81개소), 강원(128.20)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문화시설 수로는 제주를 포함한 8개도 가운데 5번째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순천이 15개소로 가장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고, 구례(4개소)가 가장 문화시설 기반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특히 서울(38개소)과 경기(44)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1개관당 연관람인원은 1만8463명(하루 50명 수준, 전국평균 6만36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1개관 당 소장 자료도 평균(1537점)의 절반 수준인 850점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박물관의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도 5513점으로 전국 평균(1만4495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람인원도 11만2541명으로 평균(12만2731명)에 미치지 못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문예회관 개방형 관장제 도입되나

### 혁신TF팀 발전 방안 논의

### 7개 예술단 활성화 모색도

광주문화예술관, 개방형 관장제 도입 될까?

지난달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TF팀’을 꾸린 광주문화회관이 개방형 관장제를 포함한 회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TF팀은 지금까지 2차례 회의를 갖고 7개 안건을 선정, 논의를 진행중이다.

안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문화예술관장의 개방형 직제 도입을 포함한 문화회관 전문화 방향’이다.

광주문예회관의 경우 수년 전부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관장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가운데 공무원이 관장직을 맡는 곳은 광주시 뿐이다. 인천문화회관의 경우 현재는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지난 2011년 개방형으로 관장을 뽑은 적이 있으며 최근 공모 역시 공무원과 개방형 모두 열어놓고 진행했었다.

공무원 출신 관장의 경우 예산 확보나 시와의 관계 면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회관의 효율적 경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관장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광주문화회관의 경우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고, 1년 미만 재직자도 50%에 육박,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TF팀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검토해 의견을 낼 방침이다.

TF팀은 7개 시립예술단체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시설, 콘텐츠 개발사업) ▲예술



지난달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TF팀’을 꾸린 광주문화회관은 개방형 관장제 도입 등 회관 발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진은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모습.

단 임용 및 평정 ▲예술단 사무국 설치 및 단무장 순환보직 ▲예술단원 정년 및 급여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규칙, 복무규정 검토 ▲시의회에서 의욕이 제기된 사항 등이다.

혁신 TF는 이달에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9월부터 소위원회(문화예술회관·예술단 운영)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TF팀은 조오섭 광주시의원, 서한기 변호사, 육성영 노무사, 박경숙 광주여대 무용학과 교수, 최규철 광주예총 회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영민 DKB 문화공방 대표, 서춘기 세종문화예술회관 예술단 운영본부장, 이해명 광주시 정부특별보좌관, 문병재 문화예술진흥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달 부임한 신입 박영석(54) 광주문예회관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활동중인 ‘광주문예회관 혁신 TF팀’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회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9월말까지 활동을 마무리한 후 10월 광주시의회 회기에서 필요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부분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행정의 몫이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예술인들의 몫입니다. 프로라는 건 경쟁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술단원들은 발전이나 노력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동기 부여와 적극적인 서포팅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 예산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관장은 “시립예술단 노조가 자신들의 신분 보장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히고 “노조와도 꾸준히 소통하고 7개 예술단체과의 모임도 정례화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 ‘BK21 지역어 사업단’ 7일 강연회

### 유타밸리대 강미옥 교수 초청

근대 이후 한국사회 언어 주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여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 국어국문과 교수)이 제5회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7일 오후 2시 Gn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미국 유타밸리대학교 강미옥 교수를 초청, ‘저항, 정체성, 자본-한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변화 과정’을 주제로 근대 이후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세계화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언어적 담론을 확장시켜왔는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강 교수는 세계가 다문화·다언어를 삶의 표준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 언어 주체들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의 모습을 전망할 예정이다.

한편 강 교수는 전북대 국어교육과와 미국 오리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s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GMA

### 지역작가에 대관료 50% 할인

광주시립미술관(조진호 관장)이 서울 사간동에 위치한 갤러리GMA의 대관료를 50% 줄였다.

시립미술관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광주 출신 작가 대관료를 일주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또 전남 출신 작가에게도 지원의 폭을 확대해 광주 작가들과 같은 대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016년 7월 31일까지다. 문의 062-613-713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